

2013. 6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3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3.6.27.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김명수, 오덕성, 유덕순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창욱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6	-	1	13	-	13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3	-	13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건	건	5월
교양	'시사플러스' 스튜디오 출연 PD 역할 증대	'시사플러스' 스튜디오 출연 PD 역할 확대	5월
교양	'시사플러스' 심층적인 소재는 단일 아이템으로 프로그램 제작	'시사플러스' 심층적 소재는 방송량을 한가지 아이템으로 제작	5월
보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4대악 척결 지속적 보도	4대악 척결 뉴스로 지속적 처리	5월
교양	'아침이 좋다' MC 의상 지적	'아침이 좋다' MC 의상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착용	5월
보도	청년취업 일자리 뉴스 발굴 보도	청년취업 일자리 꾸준히 보도	5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시사광장’과 ‘시사플러스’에서 대전원도심 문제를 소재로 방송한 횡수를 살펴보니 단 1회 뿐이었다. 개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다. 옛 도청건물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민대학 관련자들이 76명이 상주하고 있다. 도청부지를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방송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장동환).	옛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는 지역방송으로서 주요 관심사다. ‘시사플러스’에서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방향으로 활성화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편성수용
교양	토크 앤 조이의 “여우숲 지킴이 김용규 교장”(6/22) 편을 보았다. 연예인 신변잡기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출연진을 선정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생태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해주어 즐겁게 시청하였다. 이렇게 시청자들과 교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정진해 주었으면 한다(김영광).	칭찬에 감사하다. 제작진은 항상 시청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즐거움을 선사할 출연자 섭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용규 교장’처럼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인물을 추천해 주면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편성수용
보도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현장화면에는 오토바이로 인해 훼손된 현장은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타는 영상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갖는다(김영광).	뉴스에 맞는 보도영상 확보에 노력하겠다.	보도수용
보도	6.25. 개념에 대해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훈가족 도우미들이 인형극을 펼치는 것을 뉴스로 보내주었는데 자막에는 ‘한국전쟁’으로 표기되었다. 잘못된 표기이다(김영광).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뉴스 자막 등의 용어에도 신중을 기하겠다.	보도수용
보도	토론프로그램이 지상파 3사(대전MBC, TJB, KBS대전)가 동시간대 같은 요일에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다. 지역 아젠다 설정에 토론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가능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의제를 아이টেماً로 선정 발빠르게 방송해야 할 것이다(김영광).	아이템 선정시 의제화 할 수 있는 이슈 선점이라든지 발빠른 접근 등 논의 구조를 더 활성화하겠다.	보도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기타	모바일 웹 서비스를 대전MBC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데 자주 끊겨진다. 이를 확인했으면 한다(박희원).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탑재할 때 모바일용은 별도로 변환시켜 작업을 하는데 인코딩시 기술적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점검해 원활한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경영(전산)의견참고
교양	토크 앤 조이의 “여우숲 지킴이 김용규 교장”(6/22) 편에서 자연생태, 힐링 등을 보여주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좋은 소재는 시청자들이 먼저 반겨준다(한찬희).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 ‘김용규 교장’은 단비같은 존재라 생각된다.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해 줄 인물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편성수용
보도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취업률이 낮은 것은 별개로 굶은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향하는 불굴의 도전의식을 가진 귀감이 될 만한 젊은이들을 발굴하여 뉴스로 내보냈으면 한다(박희원).	살맛경제 등 기존 기획물에 청년 실업이나 취업률 상승을 위한 제언 등을 보도하겠다.	보도수용
교양	지역 지상파방송에게 지역성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지역방송의 백미는 뉴스, 시사프로그램 이외 특집 기획방송이다. 특집 기획방송이 다양하게 기획 제작되어 시청자들에게 선을 보였으면 한다(김경숙).	올 해는 보다 다양한 특집 다큐를 준비하고 있다. ‘황해’ ‘에코힐링, 숲을 디자인하라’ ‘세계속의 한류’ 등이 그것이다. 좋은 작품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편성수용
교양	연세대학교 사업팀에서 대전의 동춘당을 소재로 동영상을 제작, DVD를 구축 탑재하여 전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대학교수가 영상 디지털 제작은 지역방송사가 하는 산학협동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 본다(김경숙).	좋은 제안에 감사하다. 대학과 방송사의 산학협동은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생각한다. 산학협동에 대한 자세는 항상 열려있고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편성의견참고
보도	로컬 뉴스의 헤드라인 뉴스가 날씨, 일반적 사건보다 지역현안, 시청자들이 정말 알고 싶은 뉴스를 메인 뉴스로 취급해야 한다. 시청률 조사표를 보니 전국뉴스에서 로컬뉴스로 전환할 때 10% 빠지고 로컬뉴스 진행 중에 10% 빠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기에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전진배치 해야한다고 본다(송인덕).	주 시청층에 포커스를 맞춘 뉴스 편집을 강화 중에 있다.	보도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 PD가 출연 취재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은 본사 PD수첩 포맷을 보는 듯하다.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PD 역할이 영상 내용을 중언부언 하는 역할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다. 사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 결론에서 합리적 대안 등이 PD로부터 제시된다면 더욱 바람직하겠다(김형주).</p>	<p>PD가 출연하여 언급하는 멘트는 시청자들에게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하기에 항상 심사숙고 하고 있다. 다소 부족한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앞으로 기대해주면 고맙겠다.</p>	<p>편성 수용</p>
보도	<p>대전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를 연고로 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연고팀의 그날 경기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결과를 토대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선수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등 스포츠를 중심으로 관련된 보도를 현재보다 더 많이 취급하기를 바란다(김형주).</p>	<p>지역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p>	<p>보도 수용</p>